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문광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 6000만원 확보

서남권 최고의 관광명소인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도내 최초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국 26개 관광지가 응모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선정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은 장

아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선운산도립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운산도립공원이 열린 공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선운산도립공원이 전국 최고의 생태녹색 열린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관광지는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여수 오동도,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보령 대천해수욕장, 고성 당항포관광지 등 총 5개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꼭지 짧은 수박 4월부터 전면 유통

1-자형 3cm 이내로... 연간 627억 경제 효과 예상

지난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수박꼭지의 모양은 종전의 T-자형에서 1-자형으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는 종전의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지며, 적용 대상은 전국 공영도매 시장 전국 농협농산물판매장, E-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소매점이다. 그동안 수박의 T-자형 꼭지에 대해서는 유통의 비효율성과 품질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출하 단계에서는 수확 시 가위질을 여러 번 해야하고, 꼭지가 길어 이동·적재 작업 시 능력이 떨어져 일손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꼭지 손상에 의한 품질저하 및 폐기량 발생 등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폐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

히, 외국의 경우 꼭지가 없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 학계 연구를 실시한 결과 꼭지 길이와 품질은 무관하고, 유통의 편의성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향후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이 정착될 경우 연간 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출하 단계에서는 꼭지 절단 작업이 수월해져 노동력이 1/3 정도 감소되는 등 연간 177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꼭지손상에 의한 감모·폐기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4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각 단계에서 나타난 비용 절감분 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고, 수박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시에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또한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국유재산 실태조사

임실군이 내달 2일부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을 대상으로 이용 상황별 현황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및 경작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실상 행정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무단·불법화원 국유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 '녹색아파트' 2곳 선정

메카센터럴·호반리젠시빌아파트

남원시가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2016년 녹색아파트로 메카센터럴, 호반리젠시빌아파트 2곳을 선정하였다. 녹색아파트 사업은 인구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녹색아파트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 주관 경진대회에서 경보·그린아파트가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선정된 녹색아파트는 4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가정 에너지 진단 참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설치 △

녹색생활 실천 등 입주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이 실천해야 할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 모범적인 녹색아파트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인 역할을 물론, 가정에는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한농공,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팔덕저수지에서 전주평화로타리클럽·농업인 등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깨끗한 환경, 풍요로운 농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에 위치한 팔덕저수지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직원 및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평화로타리클럽, 농업인 등 50명이 참여해 저수지에 유입된 각종 오염물 및 폐기물 1톤을 수거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전 캠페인 및 관계기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펼쳐졌다.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평화로타리

클럽은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던 중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화활동 및 관계기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박중기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지자체·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적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맑은 물, 안정적 농업수 공급과 더불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부장



'줄타기, 줄광대 이야기' 공연

27일 오후 3시 임실군청 문화강좌실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오는 27일 오후 3시 '줄타기, 줄광대 이야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임실군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주관하여 4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기획프로그램으로 열리며, 김대균(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명인의 공연과 유영대 교수(고려대학교 국문학과의 강연 및 재담, 김대균 줄타기 명인의 시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에 출연하는 김대균 명인은 2000년 인간문화재(예능보유자)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줄타기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지리산 바래봉 철축제 23일 개막

제22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축제가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리산 바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바래봉은 해발 1,165m로 매년 4월 말 하단부를 시작으로 5월 중순 정상까지 순차적으로 산을 붉게 물들이는 전국 제일의 철쭉명산이다. 운봉에화하는 등산객과 상춘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허브밸리 내에 행사장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야생식물 사진전, 허브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아동·여성 안전연대 회의

임실군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21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명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공부방, 보건의료원 등 8개 기관의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해 지역연대 운영 실적과 2016년 운영활성화 방안, 기관별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례 발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지역연대는 폭력위기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긴급구조, 지속적인 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고창군,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고창군이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안면 용산천 등 6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환도 추가로 구입해 비치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물놀이 안전예방 및 대응,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